

기도나눔 다같이

찬 송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같이

- 1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 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 2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 3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명절연휴 기간 예배 안내>

- 연휴 기간(27-30일) 중 모든 공예배는 기존대로 드리겠습니다.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단, 차량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명절 예배지는 스마트폰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QR코드나 교회홈페이지,
커뮤니티, 주보/목장교재 게시판

2025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운 설 명절 되세요



가정예배

명절가정예배는 가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족 중 예배를 위해 사회자, 기도자, 찬송인도자, 설교자 등
순서를 맡아줄 가족들을 사전에 섭외해 주십시오.

음식은 미리 준비하였다가 예배 이후 함께 식사를 나누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귀한 시간의 의미를 잘 전달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사회자, 기도자, 찬송인도자, 설교자의 인도에 따라 예배합니다.

설 교 인생은 전화위복의 기회입니다 설교자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 포 다같이

있을지어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찬 송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같이

-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 2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 버릴 염려 없네
 - 3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 후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대표기도 말은이

성경봉독 역대하 20장 15절 말은이

15.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사가 시작된 이래 천만장이 넘는 판매를 기록한 클래식 음반은 단 두 장뿐이었다.
 그런데 그 두 장의 주인공이 바로 호세 카레라스였다. 그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테너 3인방이라 불리며 그의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쯤 그의 나이는
 41세였고, 백혈병으로 쓰러지게 되었다.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 열정을 다해
 연습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게 된 후 예고 없이 그가 맞이하게 된 것은
 죽음의 선고였다. 그러나 호세 카레라스는 절망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 때 예수님을 만났다.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물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골수 이식 수술과 힘든 화학치료를 받았다. 힘겹고 어려운
 것이었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손톱과 발톱도 떨어져 나갔지만 그는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기적같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제 그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 재산을 팔아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웠다. 그의 공연 수익금은 모두 이곳으로 보내졌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병마는 그를 주님을 쫓는
 삶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동쪽에 위치한 모든 나라들, 즉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민족들이 동맹국을 이루어 쳐들어 왔습니다. 위기의 때에, 여호사밧 왕은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전쟁을 대신 치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쟁 전리품을 3일에 걸쳐서 거두어
 들일 정도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남유다 주변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사방의 평강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피할 수 없지만,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주십니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아 더욱
 베풀고 나누고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역대하 20:29-30)